

PROJECTS

World CLC Day 2022: 2022 년 세계 CLC 의 날

From conversion to commitment: a path of love, joy, and friendship.

회심에서 서약으로: 사랑, 기쁨 그리고 우정의 여정

Nº 177, December 2021

Original: English

“The wound Ignatius suffered in Pamplona was not so much a happy ending, but rather a happy beginning. Conversion consists sometimes of great moments of change, but it is also a never-ending process. We need to put Christ in the centre every time, again and again.”

(Fr. Arturo Sosa SJ.)

“이냐시오 성인께서 팜플로나에서 겪었던 고통은 행복한 결말이었다기 보다 행복한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심에는 때로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 존재하지만, 또한 끝이 없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 순간, 매 번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 -아르투로 소사 예수회 총장-

To the National Executive Councils and all CLC members:

세계 CLC 상임 위원들과 CLC 회원들에게:

Introduction

This jubilee year (May 20, 2021 – July 31, 2022), we have been celebrating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conversion of St. Ignatius of Loyola, our patron saint and father in spirituality. Ignatius, healed of his wound, offered himself completely to the Lord. We are also celebrating, on March 12th, 2022, the 400th anniversary of the canonization of St. Ignatius and St. Francis Xavier who, with several others, co-founded the Society of Jesus. Their friendship in Christ blossomed out of spiritual conversations, the kind of conversations that we seek to engage in CLC and even in our Church today as she prepares for Synod 2023. Additionally, their friendship exemplified an ongoing, deepening commitment in the way of the Spirit, one that grew in love, support, and enthusiasm for one another, on mission together in the world, with Christ.

우리는 ‘성 이냐시오의 해’ 희년인 2021년 5월 1일 부터 2022년 7월 31까지 우리의 수호 성인이며 영적 아버지인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회심 50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완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2022년 3월 12일에 동료들과 함께 예수회를 창립하신 이냐시오 성인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시성 400주년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분들의 우정은 영적 대화를 통해서 꽃피웠습니다. 2023년 시노드를 준비하는 CLC와 우리 교회안에서도 이러한 영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분들의

우정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함께하며, 사랑으로 성장하며, 지지하고, 서로에 대한 열정으로 영적 여정을 깊이 수행하며 나아가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Living in the world, in our humanity, we experience woundedness in many forms—in our personal journeys, in our families, in our workplaces, in our communities, in our Church, in our world. Drawing on the inspiration of St. Ignatius and St. Francis Xavier, we consider how to work through our woundedness to conversion, and we seek ways to offer ourselves to the Lord, through an increased desire to love, to serve, and to deepen our commitment to the CLC way of life on many levels.

인간으로서 세상안에 살면서 우리는 개인의 여정 안에,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은 형태의 상처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성 이냐시오와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에게 영감을 받아, 어떻게 상처를 통해 회심할 수 있는지 숙고하며, 더 사랑하고 봉사하며, 여러 상황에서 CLC 적인 삶을 향한 우리의 서약에 더 충실하고자 합니다. 그 열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한 길을 찾습니다.

In this Projects N^a177, we invite our members to identify these areas of woundedness, to reflect on ways to open ourselves to conversion, and to explore ways to deepen in our commitment, service, and friendship in Christ.

이번 프로젝트 177 번은 우리는 회원들이 이 상처들을 구별해 내고 회심을 향해 마음을 여는 방법을 성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서약과, 봉사 및 우정을 심화하는 길들을 모색하도록 회원들을 초대합니다.

Ignatius' wound and conversion 이냐시오의 부상과 회심

Ignatius' conversion was the result of a wound, a cannonball that broke his leg, in Pamplona, in 1521. During his convalescence, he discovered that only the Lord can produce in us a lasting, profound joy, different from the superficial joy that disappears and plunges us back into sadness. "No one will take your joy away from you" (Jn 16:22).

이냐시오의 회심은 1521 년 팜플로나에서 포탄에 맞아 다리가 부러진 부상의 결과였습니다. 부상이 회복되는 동안, 그는 사라져버려 다시 절망에 빠지게 하는 피상적인 기쁨과는 달리 오직 주님만이 지속적이고 심오한 기쁨을 우리 안에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요한 16:22)

As a result of this wound, Ignatius experienced a personal encounter with the Lord. Christ touched his heart. He realized that the Lord is the source of life, of his life, that He has given him everything, that "all good comes down from above" (SE 237). He then converted, changed his life and offered himself entirely to the service of His Divine Majesty.

이 부상의 결과로, 이냐시오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주님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삶의 원천이며 “온갖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다” (영신수련 237)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했고 그의 삶은 변했으며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 놓습니다.

Ignatius did not choose to keep his experience to himself. He shared it with us in the book of the Spiritual Exercises, in order to allow others to be touched by the Lord, to be converted, and to follow Him. After his conversion in Loyola, he started his life as a poor pilgrim following his newly discovered God. He left everything aside, but he discovered that that was not enough. In his deep crisis in Manresa, he touched the roots of his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vulnerability and finally, he realized that the mercy of God was immensely greater than his sins and his good actions. This experience is what he shared with us in the Spiritual Exercises. It is a blessed wound that has given us such a saint!

이냐시오는 자신의 경험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 그 경험을 영신수련 책을 통해 우리와 나누었습니다. 로올라에서의 회심 후에, 그는 새롭게 발견한 하느님을 따르는 가난한 순례자로써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레사에서의 심각한 위기를 통해 그는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취약성의 근원을 알게 되었으며, 하느님의 자비는 자신의 죄와 그의 선한 행위보다 훨씬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영신 수련을 통해 우리와 나누었습니다. 그 부상은 우리에게 위대한 성인을 보내 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My wound and my conversion 나의 상처와 회심

Like Ignatius, each one of us has perhaps been hit in our lives by a cannonball, a shock, an incident, a particular event that wounded us, made us suffer, put us in a situation of doubt and uncertainty, of handicap, and which led to a turning point in our lives, a conversion, a change. In that particular moment, the loving Lord



reached out to us, touched the heart of each of us, in one way or another. He came to meet us. He healed the wound and allowed us to get back on the road.

이냐시오 처럼, 아마도 우리 각자는 인생에서 포탄, 충격,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삶에 타격을 입어서 고통스러워 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나 장애를 가진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심과 변화의 전환점으로

이됩니다. 이 특별한 순간, 사랑의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어 우리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We do not have to look far to identify this woundedness: personal traumas, health problems, global pandemic, ecological crises, polarization, racism, poverty, marginalization, colonialization, corruption, violence, war, hunger, etc. We look to Jesus who understood the messes we are immersed in, some of our own making, and showed us a way through the woundedness. There are those who suggest that some of our messes can be seen as gifts, ways of acknowledging and lifting up our vulnerabilities, engaging the “fight” or energy or passion of Jesus, and allowing ourselves to be converted to live out more fully the “civilization of love” or the reign of God as promoted by Jesus, Ignatius, and Pope Francis.

이런 상처들은 많은 곳에서 발견됩니다: 개인적인 트라우마, 건강 문제, 세계적인 유행병, 생태 위기, 정치적 양극화, 인종차별, 가난, 소외, 식민지화, 부패, 폭력, 전쟁, 굶주림 등 우리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만들어냈고 또 깊이 빠져있는 이 엉망진창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혼돈의 상황들을 우리의 약함을 인식하고 보충할 수 있는 선물 또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회심하고 예수님께서 해왔던 투쟁, 예수님의 에너지 그리고 그의 수난에 동참하여 예수님과 이냐시오 성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구하는 “사랑의 문명”, 하느님의 나라를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Fr. Greg Boyle, S.J., of Homeboy Industries in Los Angeles, California, USA, describes the experience of a former gang member who suffered much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s a child. He used to wear three T-shirts to school to cover the blood and scars on his back. He used to be ashamed of his wounds and regularly sought to hide them until he realized how he should welcome his wounds, make friends with his wounds, so that through his own experience of woundedness, he could help heal the wounds of others. This realization was the significant moment.

미국 캘리포니아 LA Homeboy Industries¹ 소속 예수회 신부인 Greg Boyle 은 어릴 때 육체적 감정적 학대로 인해 고통을 받은 전 갱 멤버에 관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학교에 갈 때, 등에 있는 상처 자국과 피를 감추기 위해 T-shirts 3 개를 겹쳐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상처를 수치스러워 했고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기꺼이 그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상처들을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이 깨달음은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 I take time to identify my “blessed” wounds. They might be personal, communal, in my family, in my workplace, in the Church, in the world.
- 나는 “축복 받은” 상처를 분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상처들은 개인적이거나, 공동체적이거나, 가정, 직장, 교회, 세상에서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¹역자 주: 이 단체는 전 갱단 출신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homeboyindustries.org/our-story/our-mission> 참조

- I remember that particular moment when the Lord came to set my heart on fire and awaken in me the desire to follow Him. What did I feel?
- 나는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에 불을 놓고 내 안에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불러일으킨 특별한 순간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느꼈습니까?
- Today there are different fields that need our conversion: conversion to the poor and the victims of our world, conversion to ecology, conversion to diversity and plurality of religions and cultures, conversion to the Church and the Gospel... among others...
-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의 회심이 필요한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이 세상의 희생자들을 향한 회심, 생태환경을 위한 회심,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을 향한 회심, 교회와 복음을 향한 회심...특별히...
 - Which conversion do I need? 나에게서 어떤 회심이 필요합니까?
 - In what ways can I contribute to a civilization of love and reconciliation and healing? 나는 사랑과 화해와 치유의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까요?

Ad Amorem 사랑으로

In the contemplation to obtain love, Ignatius tells us that love is in actions more than in words, and that it consists of a reciprocal communication, of an exchange. Now all that I am, all that I possess, comes from the Lord. Nothing belongs to me. I reflect on this Psalm: "What shall I return to the Lord for all His goodness to me?" (Ps 116:12) This is the very heart of Ignatian spirituality. We do not do good actions to earn salvation, we do good because it is our way of expressing gratitude for the absolute love that we have received from God, who has worked for my salvation in every single thing in Creation and in my life.

사랑을 얻기 위한 관상에서, 이냐시오는 사랑은 단순한 말보다는 행동이며 상호 의사소통과 서로 주고 받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전 존재와 나의 모든 소유물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시편의 구절을 묵상합니다.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시편 116:12). 이 구절은 이냐시오 영성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고 선한 행동을 하지않고, 창조와 내 삶의 모든 것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느님에게 받은 절대적인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자 선한 행동을 합니다.

- What can I offer Him in return for His love? How can I express my love and gratitude? I can only give Him back all that He has given me: "Take, Lord, and receive all my freedom...". (SE 234)
-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나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나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나요?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받아 주소서, 주님, 저의 모든 자유와...” (영신 수련 234)
- I consider my concrete reality, my life and my world. I consider my time, gifts, availability, experience, wisdom. What is my part to do? It is

important to be authentic to the role each of us plays and not to judge how big or small that role is. Each of us is made in the image of God; each of us reveals that part of God that no one else can reveal.

- 나는 나의 구체적인 현실, 나의 삶과 나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시간, 재능, 가용성, 경험, 지혜를 생각합니다.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하는 역할이 고유하고 그 역할이 크던지 혹은 작던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이 드러낼 수 없는 하느님의 일부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This desire, this impulse to want to follow the Lord is only the fruit of a personal encounter with the healer. When we are healed, we are led to an inner knowledge of the one who loves us freely to the point of giving his life for us. From this experience, we want to stand under the standard of the Lord, to commit ourselves to serve him.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갈망, 충동은 치유자이신 주님과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만 생깁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치유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을 섬기겠다는 서약으로 주님의 깃발 아래 서게 됩니다.

It is true that commitment is not about words. Commitment, first of all, emanates from the heart. It is an inner movement and the result of a process. But as human beings we need words to express what we are living in a process. We need a moment to stop and say “yes, I love you” and this would express a process of many years of friendship with another person and with God. For some, making a commitment in a public way allows me to witness to my love for the Lord, to make concrete that exchange Ignatius speaks of in the Ad Amorem. It is like the commitment of two spouses who exchange the 'yes' in the presence of God and the witnesses representing the Church. It is also like the 'yes' of Mary before the Angel on the day of the Annunciation. And like the implicit ‘yes’ that we pronounce,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when we have the opportunity to renew the promises of our Baptism publicly at Easter or when we attend another Baptism. This is our fundamental commitment. Commitment means freedom, fidelity, responsibility. If we think about it, we find that the commitment to CLC is quite natural, but deliberate and conscious. We can then praise the Lord with the Psalmist: "How shall I repay the Lord for all the good He has done for me? ... I will keep my promises to the Lord, yes, before all his people" (Ps 116:12; 18)

서약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사실이며, 무엇보다도 서약은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서약은 내면의 움직임이며 어떤 과정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한 과정을 지나가면서 생기는 일들을 표현하는데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고 “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필요하며,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들과 그리고 하느님과의 오랜동안 쌓아온 우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고, 이냐시오가 Ad Amoem 에서 말하는 주고받음을 구체화하기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서약을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교회를 대표하는 증인들 앞에서 ‘예’를 교환하는 두 배우자와 같습니다. 또한 수태고지를 알리는 천사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마리아와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모두가 행하는 세례 갱신 또는 다른 세례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말하는 ‘예’ 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서약입니다. 서약은 자유, 신뢰, 책임을 뜻합니다. 생각해보면 CLC 에 서약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의도적이고 의식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저자와 함께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주님께 나의 서원들을 채워 드리리라, 그분의 모든 백성 앞에서”(시편 116:12;18)

As we deepen in our commitment to love, service, and the CLC way of life, our members may feel the call to express this commitment publicly. Many communities have developed beautiful commitment ceremonies which we encourage you to share.



사랑, 봉사 그리고 CLC 삶의 방식을 향한 우리의 서약이 깊어짐에 따라, 회원들은 이 서약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공동체들이 아름다운 서약식들을 생각해냈는데 그것들을 우리 모두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How do I find myself deepening in a commitment to God, to the CLC way of life,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CLC 의 삶의 방식,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서약이 깊어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Do I feel drawn to make a public commitment to the CLC way of life? If I have already made a public commitment to the CLC way of life, how has this impacted my life and helped me to grow in love, service, and friendship in Christ?
- 나에게 CLC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공개적인 서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이미 CLC 삶의 방식으로 공개적인 서약을 했다면, 그 서약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봉사 그리고 우정이 깊어지는 일에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The Friendship of St. Ignatius and St. Francis Xavier 이냐시오 성인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의 우정

From biographies of these two saints, we learn that both originated from the Basque Region of Spain but first met as students studying at the University of Paris. Ignatius was an important influence on Xavier, and while initially reluctant to do so, Xavier made the Spiritual Exercises with Ignatius. Their companionship with five others deepened over the following years so that on the 15th of August 1534, they pronounced vows. They were not priests (only Peter Faber was), just Friends in the Lord. In 1537, they were ordained priests; and in 1540, their continuing spiritual conversations led to the formal founding of the Society of Jesus. Their experience teaches us that spiritual conversation after personal prayer is the most useful tool for discernment in common.

이 두 성인의 자서전에 의하면 두 분은 모두 스페인의 바스크 지역 출신이며 파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처음 만났습니다. 이냐시오는 하비에르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하비에르는 처음에는 꺼려하였으나 이냐시오와 함께 영신 수련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5명과 함께한 그들의 동료애는 수년간을 걸치며 더 깊어졌고, 1534년 8월 15일에 그들은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 때에 피터 파브르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부가 아니었으며 단지 주님 안에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1537년까지는 그분들은 모두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영적 대화를 해 나갔고 1540년에 예수회를 공식적으로 창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경험은 개인적인 기도 후에 영적 대화를 하는 것이 공동 식별을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Both Ignatius and Xavier were known for their passion and commitment to their work in the service of God. Hallmarks of their demeanor were joy, calm, vitality, even laughter! Xavier was known to be enthusiastic as a missionary, and he attributed this enthusiasm to the support and prayers received from those that sent him and “from the beauty with which he viewed his service.” He was serving God and helping others, helping others to find God.

이냐시오와 하비에르 두분 모두 하느님께 봉사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쁨, 평온, 활력, 웃음은 그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비에르는 선교사로써의 열정으로 잘 알려져있고, 그는 이 열정을 그를 보낸 사람들의 지지와 기도 그리고 그가 봉사를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한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왔으며 사람들이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Reading the lives of these two saints, we can appreciate how they encouraged one another to deepen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ways of God and in their commitment of being of service to God.

이 두 성인의 삶에 대해 읽으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길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있어서 그리고 하느님께 봉사하겠다는 서약에 있어서 더 깊어지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격려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How do the friendships made in CLC encourage me in the ways of spiritual conversations and to find joy in service with Christ?

CLC 를 통해 맺은 우정이 어떻게 영적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나요?

Conclusion 결론

In this Ignatian year, and especially on our World CLC Day -25th March 2022-, we encourage everyone to dare to make their "yes" heard, like Mary, like Ignatius, like Francis Xavier, like many other witnesses.

이냐시오의 해, 특별히 2022 년 3 월 25 일 세계 CLC 의 날에, 우리는 마리아처럼, 이냐시오 처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처럼, 많은 증인들 처럼 우리 모두가 “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pe Francis said recently at a Mass in Greece, “As far as Christ is concerned, we need only open the door and let him enter in and work his wonders.” In our woundedness and vulnerability, may we open our hearts to conversion, commitment, and service in the friendship of Christ and one another. Filled with Christ’s love, joy and peace, our communities can be instruments of healing in our world.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최근 그리스에서 드렸던 미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한, 그분이 들어오셔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 속에서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와 서로의 우정 안에서, 회개와 헌신, 봉사를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기쁨, 평화로 가득찬 우리 공동체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Communities are encouraged to share reflections, photos, videos, etc. with our world community directly on our Social Media accounts or to our Executive Secretary, Manuel Martínez (exsec@cvx-clc.net).

공동체들은 자신들의 성찰, 사진, 동영상 등을 세계 공동체 Social Media Account 나 상임위원 Manuel Martínez (exsec@cvx-clc.net) 에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n Marie BRENNAN • Najat SAYEGH • Denis DOBBELSTEIN • Catherine WAIYAKI

Daphne HO • Diego PEREIRA • Fernando VIDAL
José DE PABLO SJ • Manuel MARTÍNEZ

Rome, 17TH December 2021